

나의 2000년대 교회 목회를 말한다

이 용 호
(목사, 서울영천교회)

I. 서론

2000년대를 국가발전이나 사회발전적인 측면에서 전망할 때 장미빛 같은 희망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인류는 어느 세기보다 풍요로운 물질을 소유할 수 있고 궁핍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사회건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정보사회가 도래하여 보다 더 능률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얼마든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덕의 타락은 인류를 파멸로 치닫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질병이나 재난이 도래하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까지 우려하고 있는 시각도 있다. 또한 문제되는 것은 지구의 환경문제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자연파괴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치유불능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음 세기는 자연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이상의 이러한 견해들은 21세기 위원회에서 전망해 본 입장이다.

아무리 시대를 밝게 전망하는지 아니면 어둡게 전망하는지 간에 21세기의 목회는 변해야 하는 측면과 결코 변해서는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중심 원칙을 가지고 나의 2000년대의 목회 계획을 말해 보고자 한다.

II. 기성신자에 대한 재발견의 목회

지금 목회현장에는 온통 교회성장의 욕구와 열성에 충만해져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회에 머물고 있는 기존신자에 대한 의미를 놓쳐 버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나의 목회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한 면은 기성신자들을 지금의 상태로 안주시켜 놓아서는 안된다는 조급함이다. 아무리 보아도 더 성숙한 교역자가 되어야 하고 더 장성한 모습의 당회원이 되어야 하고 더 충성스러운 제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성신자에겐 신앙적으로 복합적인 모습이 있다. 때로는 새신자들보다도 더 침체되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열등감도 더 심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기성신자에게도 많은 장점이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훈련만 따른다면 새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기성신자에 대한 재발견이요, 그러한 교육목회는 지속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목회 방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전교인의 신앙생활의 중산층화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건설의 한 목표는 전국민의 중산층화이다. 이러한 중산층 계층의 형성은 힘있는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넓은 지역에 많은 동네가 산재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재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서울이 아닌 다른

동네같은 수준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는 어느 정도 중산층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지금 강남의 여러 지역 교회들에는 중산층의 교인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다. 큰 재벌은 없어도 중산층 수준의 교인들이 많을 때 모든 면에서 힘이 있다. 여기서 중산층이란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을 이루고 대학교육을 받은 사회의 중간집단 지도자에 속하는 그룹이라고 규정하는 계층이다.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도 신앙수준의 중산층형화를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경은 영적인 미숙병을 많이 책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5:11~14 말씀에는 매우 엄하면서도 구체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

내가 말하는 신앙의 중산층이란 개념은 바로 위의 본문에서 설정된 것이다. 거기에 세 가지의 신앙인의 미숙한 모습을 말했는데 첫째는 때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선생이란 영적인 면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 되었는데 집사나 장로는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영적으로 남을 도와 주는데 미숙한 교인들이 더러 있다. 이들을 선생이 되도록 중산층화 해야 한다.

둘째는 아직도 젓을 먹고 있으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했는데, 즉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말씀과 삶의 불일치는 가장 심각한 미숙병이다. 젓은 반드시 먹는 시기가 있어야 하지만 결코 오래 먹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단단한 것도 먹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

셋째로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적인 분별력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훈련과 만남을 통하여 형성되는 인격성의 한 요건이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보면 위의 세 가지 면에서 너무나 유치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즉 신앙의 중산층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훈련방안이 절실한 것이다.

2. 당회원과 장립집사들의 재 교육

지금 목회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필요이면서도 가장 등한시되고 있는 일이 교회의 중심인력에 대한 연수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당회원이나 장립집사들의 교육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교회의 행정구조적인 측면이나 조직에 있어서 그 핵심은 당회이다. 특히 장로교회는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뜨거워질 때 전체직원이 뜨거워지고 나아가 전교인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다. 반면에 당회가 냉담해지면 그 교회는 결코 활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교회의 목회현실이 당회에 비중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회를 영적인 면에서 성숙시켜야만 앞으로의 목회에 새로운 도약이 있게 될 것이다.

당회원의 성경공부나 세미나 등은 개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한 주에 한 번씩,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꼭 시행해야 한다. 나의 목회에서는 현재 당회원 성경공부를 상당한 의미를 두고 시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을 해서 지속시킬 계획이다. 우선 당회원이나 장립집사라 하면 알만한 것은 다 아는 수준이요, 교회의 봉사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도 대부분의 짐을 지고 있는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를 다루는 식의 성경공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둔 훈련장이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만남의 의미를 살리고 참여와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협동과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훈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라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동기가 발생되지 않고 사명감과 책임감의 인식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갈등의 극복은 모이고 대화하고 나누면서 성령의 충만 안에서 힘을 얻

어가야만 가능해지는 일이다.

Ⅲ. 교회성장 전략에 대한 계획

나의 목회비전 가운데 교회성장에 대한 관심은 변함이 없다. 꼭 2000년대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 교회성장 전략 수립은 항상 갱신되면서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성장의지와 전략이 없다면 목회는 침체할 것이고 또 퇴보하고 말 것이다.

1. 목회자편에서의 전략

1) 무엇보다도 목회지도력을 키우는데 더욱 진력할 것이다.

목회지도력은 양면의 조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즉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요, 또한 지도력 자체는 교인을 다루는 역량이다. 수직적인 면에서의 믿음과 수평적인 면에서의 지도력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위와 덕망을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

목회자의 지도력은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에 근거한다. 그러한 지도력은 덕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도자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권위만 있고 덕망이 없는 지도자. 둘째, 권위는 없고 덕망만 있는 지도자. 셋째, 권위도 없고 덕망도 없는 지도자. 넷째, 권위도 있고 덕망도 있는 지도자. 이러한 유형은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지도자 유형이다. 첫번째는 독재자적인 지도자일 것이고, 두번째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일 것이고, 세번째는 교회를 쇠하게 하는 지도자일 것이고, 네번째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지도자일 것이다. 마땅히 네번째 모델을 갖추어야 한다. 또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지도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 설교사역에 항상 전력을 투구할 계획이다.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 주는 양면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평신도들의 불만의 핵심은 설교를 은혜롭게 해 달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원하는 우선순위는 목회자의 정직과 설교라고 했다. 매우 공감 가는 지적이다. 정직은 앞서 논한 지도력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교는 목회자의 기능요 영적지도력을 가능케 하는 사역이다. 나는 설교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목회사역의 우선순위를 설교에 둔다. 둘째, 설교를 잘 하기 위한 일정한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셋째, 가능한 한 설교의 회수를 줄이려고 한다. 주일 저녁이나 수요기도회에서는 성경공부식 강론을 계속 시도하고자 한다. 넷째, 설교를 너무 한꺼번에 다 줄려는 식의 방법을 단순화 하고자 한다. 즉 너무 길게 설교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메시지가 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가장 큰 재산은 설교의 기술을 익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년과 노인목회를 항상 새롭게 투영시켜 가고자 한다.

“여호와여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하는 말씀처럼 목회자는 항상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무모한 만용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일이나 2000년대를 해석하는 일이나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항상 신앙의 투영(Faith Projection)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침체에서 새출발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실패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000년대는 어쩌면 통일이 될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통일에 대비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날로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청년목회에 더욱 주력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목회에도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2. 교인편에서의 전략

1) 기도운동에 평신도를 동원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지도자도 기도하고, 그룹별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전교인을 기도에 동원하는 데서 성령운동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헌신하게 해야 한다. 이는 지도자나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열려있게 해야 한다.

3) 평신도 훈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교회의 기관활동과 구역활성화를 말한다.

4) 위의 세 가지 평신도면에서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연수원이나 기도원이라는 훈련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회당에서는 기도하는 일이나 훈련의 효력에 있어서 구태의연하기 쉽다.

한 가지 비공식적인 평가는 크게 성장하는 교회는 대부분 기도원이나 훈련원이 있으며, 그 교회가 성장하는 동기와 과정에서 기도원이 주는 힘은 매우 크다고 평가한다. 신반포중앙교회 박용래목사는 서울근교의 대표적인 오산리기도원과 갈멜기도원을 설립한 장본인인 기도원 운영의 전문가이다. 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배경에는 기도원에서 일어난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이 핵심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교인들을 항상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충만의 분위기를 기도원에서 체험케 하여 교회로 돌아가 사역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교회 평신도 훈련을 위한 기도원 설립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의 목회전략중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꼽고 있기도 하다.

IV. 교회행정의 개혁과 시설확장을 위한 계획

1. 교회행정의 개혁이 시급하다.

1) 먼저 회의를 간소화해야 한다. 교회조직에는 당회를 비롯한 제직회 등 교회의 갖가지 조직이 있고 지회가 있다. 그래서 각종 회의가 많다. 특히 당회나 건축기성회나 선교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등의 회의는 가능한 한 짧고 횟수가 적은 게 좋다. 하용조 목사는 “교회가 회의하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런지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회의란 짧을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 회의 때 논쟁이 될 만 한 중요 안건들은 미리 대화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합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 교회의 조직을 기능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교육기관들로서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부 등이 있고 자치선교기관으로서 청년회, 청장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이 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각종 선교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은 연령이나 계층이나 신분별로 국한되어 있고 사역에 제한성이 많다. 그래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별 사역기관을 활성화 해야 한다.

누구나 재능 및 재물을 가지고 참여하는 각종 선교회나 장학회 등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서울의 여러 교회들은 기능별로, 즉 의료인들이나 같은 직종, 상인들, 그외 뜻있는 동지들이 모여 각종 봉사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 많이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3) 결재권을 많이 분산시켜야 한다. 당회장이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보고받고 평가하는 식에서 각 부서장들에게나 부교역자들에게 창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2. 효율적인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1) 먼저 적당한 예배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화려한 예배당

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적절한 인원의 수용이 되는 예배공간이 필요하다.

2) 불편없는 교육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목회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조건이다.

3) 주차공간이 적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교회들 중, 특히 도심의 교회들은 주차장으로 인한 불편이 극에 달해 있다. 이젠 주차장이 교회성장 요건이 되어 버린 실정이다. 완벽한 주차장 확보는 불가능하지만 작은 행사쯤은 불편없이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4) 휴식공간도 필요하다. 이젠 성도들이 머물 장소가 예배실만이 아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만큼 휴식공간이 꼭 필요한 것이다.

5) 교역자들의 사택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안정된 사역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6) 사회교육원을 설치하여 교회 안팎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여기엔 어른은 물론 유아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나의 목회현장에는 현재 상기의 조건이 하나도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중에서도 교회당 신축이 당면한 과제이다. 상기의 조건들을 다 구비한 종합시설이 확보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과 확장된 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 정도의 교회당을 건립하는 것이 2000년대 목회를 효율화하는 중요한 여건이 될 줄로 안다.

V. 결 론

2000년대는 이제 7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상의 여러 과제가 우리

의 목회현장에 내재하고 있다. 이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한 싸움 중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목회자 자신과의 싸움이다. 목회엔 여러 가지 싸움, 즉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설교와의 싸움에 있다.

웨슬리는 그 비법을 이렇게 교훈했다.

“독서(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그만 두든지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제는 건강한 목회를 소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소원으로 투영되게 해야 한다. 또한 나의 목회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전념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이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2000년대 목회의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